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1년
2022년 3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68 호

총기51년 종조탄신대재 종령 법어

수승한 밀법의 진리로 용맹정진



종령 법공 대종사

오늘은 정통밀교의 대광명이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결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께서 탄신하신지 1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이번 탄신일은 종조님께서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지 5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고 감회가 별다른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종조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총지종의 모든 종도들이 환희와 기쁜 마음으로 봉축드리는 바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경남 밀양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단아하고 고상한 품성을 지니셨으며, 어린 나이에 이미 사서삼경을 두루 익혔으며, 탁월한 문필력과 더불어 사상과 철학에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청년기에 이르러 불교에 큰 뜻을 세우시고 불법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비극의 6.25사변을 만나 나라의 어려움과 실의에 빠

진 중생들의 고통을 목격하시고, 호국불교와 진언밀교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는 대지대비의 서원을 세우시고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님의 구국도생(救國度生)과 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 그리고 선대 열반 스승님들을 비롯한 전 승단과 전 종도들의 수행정진으로 관자재보살님의 가지력과 종조님의 가지신력이 오늘의 총지종을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진언수행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원정 대성사님의 대비원력(大悲願力)을 인(因)으로 삼고 자신의 수행을 연(緣)으로 삼아 구경에는 정토(淨土)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믿음과 정진으로써 밀엄국토의 대원(大願)을 이루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진언밀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으로 우리 총지종이 길이 융창하기를 서원하고, 일체 교도가정에 무량한 복덕이 증장하기를 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 제115주년 탄신대재 봉행

가지신력이 온 누리에 펼쳐지길 다함께 서원



종조 원정 대성사 제115주년 탄신대재 총지사 원정기념관= 사진 박상우 교무

불교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 제 115주년 탄신대재가 1월 29일 오후 2시 원정기념관과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는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한 서울 경인교구

스승과 교도,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부산 정각사, 대전 만보사 등 전국 30여 사원에서도 대재를 올리고 원정 대성사의 가지신력이 온 누리에 펼쳐지길 함께 서원했다.

원정기념관 대재에서는 재무부장 승원 정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총무부장 특경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앞서 대성사의 탄생과 행장을 소개하며 총지중 창종 50주년

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탄신대재는 고유문, 종령법어, 봉행사, 발원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령 법공 예하는 법어에서 “종조님께서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지 5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다. 종조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총지종의 모든 종도들이 환희와 기쁜 마음으로 봉축드린다.”며,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믿음과 정진으로써 밀엄국토의 대원을 이루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진언밀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설교했다.

봉행사에서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종조님의 생전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기며, 펼쳐신 법과 큰 뜻을 따라 세상의 지혜를 밝히고, 그늘진 곳에 등불이 되는 불교총지종으로 나아간다.”며 서원했다.

115주년 종조탄신대재 봉행사

오늘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115주년 탄신대재입니다. 대성사께서는 반세기 전 밀엄국토 건설과 밀교 중흥에 대한 대비원으로 밀교의 법을 몸으로 체득하고, 불공의 길을 열고, 세상에 진실을 전하는 문이자 교화의 등불이 되는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단 승직자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용맹정진 해왔으며, 창종 5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뜻깊은 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봉축하게 되었습니다. 대성사께서 세상을 떠나신에 더 만나 뵈 수 없으나, 우리는 곳곳에서 남겨주신 가르침이 살아있

음을 봅니다. 불교총지중은 이 땅에 끊어진 밀교종단의 맥을 다시 잇는 한국불교사의 한 획이 되었으며, 한국 정통 밀교 종단으로서 법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성사님의 탄신재를 맞이하여 우리는 생전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기며, 펼쳐신 법과 큰 뜻을 따

다시 일으키는 밀교중흥의 대비원

라 세상의 지혜를 밝히고, 그늘진 곳에 등불이 되는 불교총지종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종조탄신대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와 자비원력이 충만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통리원장 우인 합장

종/조/법/어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 간다.

지 면 안 내

- 6면 기획 연재/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5화>
- 7면 창종 50주년 특집/총지종의 역사①
- 9면 밀교연재/밀교의 심(心)과 형(形)②

제160회 임시 총의회 개최

알림

일시 : 총기 51년 3월 3일(목) 오후 1시
장소 : 부산 법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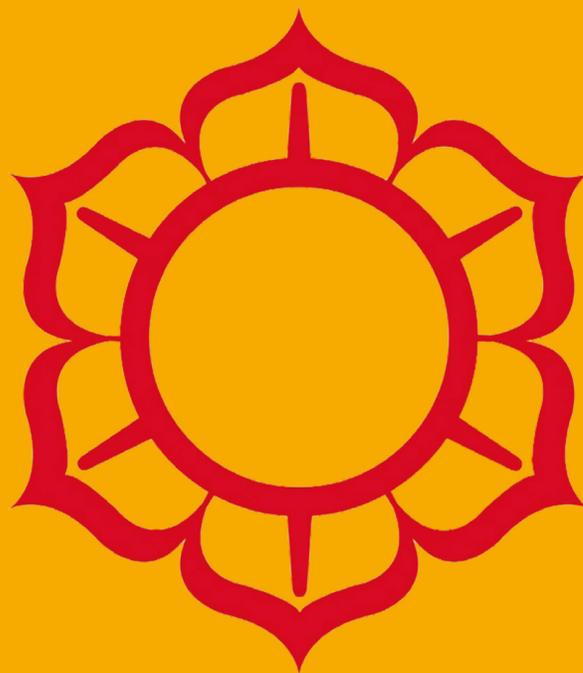
총기 51년 49일 상반기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1년 2월 19일(토)~4월 8일(금)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종조탄신 115주년 특별 기고

'불공 잘해라' 서평/법보신문 이재형 기자

원정 대성사의 삶과 사상, 종단을 넘어 모두가 기억해야할 뜻 깊은 자산

“대승보살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고난을 통해 마땅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보리심을 통달하고 보리심을 지키며 금강심을 이루고 그 금강심을 키워 불신원만(佛身圓滿)의 단계를 모두 수행하여 온전히 부처가 되리라는 물러서지 않는 각오로 정진해야 할 것이다.”

난세에는 영웅이 탄생하고 의인이 출현한다. 불교총지종을 창종한 원정(苑淨) 대성사(1907~1980)가 그렇다. 원정 대성사는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대종사와 더불어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크게 번창했지만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긴 밀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주역이다. 또한 대승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 재가불교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불공 잘해라'는 불교총지종이 올해 창종 50주년을 맞아 원정 대성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일대기다. 집필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KBS구성작가, 불교TV프로듀서, 경향신문 객원기자 등을 역임한 김천 프로덕션 맥스웍 대표가 맡았다. 이 책으로 인해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며 지식인으로, 수행자로, 불교개혁자로, 불교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던 원정 대성사의 중생구제 정신과 수행법, 지향점 등도 만날 수 있게 됐다.

1907년 1월 밀양 손 씨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대성사의 생애는 파란만장했다. 6살 때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밀양에서 만주까지 걸어 망명길에 올라 혹독한 고초를 겪고, 6·25한국전쟁 때에는 전쟁 포로가 된 의아들을 잃을 위급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붙들어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경전공부와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청명염불로 깊은 경

지에 이르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교가 산중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책에는 이 무렵 대성사에게 일생의 선지식으로 다가온 회당 대종사와의 만남이 소개돼 있다. 회당 대종사와의 만남으로 그는 밀교수행에 뜻을 세웠다. '생활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당대종사는 밀교 교법을 펼쳐 종단을 일으키자며 자신은 바깥일을 도모할 테니 교리와 수행 체계, 교단을 정비하는 일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밀교의 중흥을 위해선 교리체계, 의식과 의례, 수행체계를 정립해 정통밀교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밀교 신행의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절실했다. 대성사는 팔만대장경을 뒤져가며 밀교경전들을 찾아 번역하고 그 정수를 뽑아 체계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깨달음과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과 생활 속에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한 행을 하여 삼밀을 이루면 법계와 행자가 평등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법신여래의 삼밀이 행자의 삼밀과도 같아져 결국 즉신성불을 이루게 됨을 깨달았다.

대성사는 밀교의 가르침을 시대 변화와 대중 요구에 맞춰 새롭게 정립해나갔다. 현대 한국 밀교를 개혁하고 중흥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세간과 출세간, 생활과 불교, 남녀노소, 승가와 재가의 구분 없이 기도와 생활이 하나 되어 성불과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생활불교 종단을 창종하기에 이르렀다. 대성사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리를 사상적으로 사유하여 이해하고 배워 닦는 데만 그쳐선 안 된다. 그 진리를 오로지 자기 생명으로 행동하고 실



천하는 전인적인 체현에 도달해야 한다.” 종단이 자리를 잡고 전국에서 밀교 수행이 활기를 찾아갔다. 대성사는 창종 이후 한국 현대밀교 사상 처음으로 삼매야계단과 금강계단을 열어 관정식을 베풀고 정통밀교를 전수할 아사리를 배출했다. 교세는 불꽃처럼 일어나 30여 개의 사원이 속속 개설되고 행정기관인 통리원과 연구기관인 법장원이 신설됐다. 교도들의 참여와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신정회가 결성됐고, 각종 교전이 편찬됐다. 이 한가운데 대성사가 있었다. 만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총본산 1층에 앉아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입으로는 진언을 외었다. 누구든 찾아와 법에 대한 물음이나 개인 고민도 털어놓았고, 그에게서 답을 찾고 위로를 얻었다.

1980년 9월8일, 대성사는 “불공 잘해라”라는 짧지만 강한 마지막 법문을 남기고 열반적정의 세계에 들었다.

기억은 자신의 동질성을 지켜주는 힘이고 기억의 축적은 역사를 이룬다. 그러나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때때로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부질없는 것을 기억한다.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과 자료를 찾고 되살려낸 원정 대성사의 삶과 사상은 특정 종단을 넘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할 뜻 깊은 자산이다.

임인년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국가 안녕 기원



사진=부산 정각사 김철수 교무

불교총지종 전국 각 사원에서 2월 19일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에 들어갔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자녀 잘 되기 불공을 병행해야 된다.'며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제정한 총지종의 특별기도 중의 하나다.

본산 총지사 법수연 전수는 입재 설법에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업장 소멸을 위한 불공으로 총지종의 모든 스승과 교도가 49일 동안 융맹정진하는 불공이다.”고 설명하고, “불공 기간을 통해 부모로서 자

식에 부끄러운 점은 없는지 참회하고 자식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서원하자.”고 당부했다.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제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총기 4년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하면서 비롯되었다. 49일 불공 정진의 주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조상을 위한 천도 불공과 자녀의 성공을 소원하는 자손 불공이 있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4월 8일에 회향한다.

종립 동해중학교 제201차 이사회 개최

신임 이사장 우인 정사, 이사 록경, 법일 정사



이사장 우인 정사



이사 록경 정사



이사 법일 정사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 동해중학교 제201차 이사회가 지난 2월 15일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제20대 통리원장 취임 후 신임 재단이사장에 선임된 우인 정사를 비롯해 총무부장 록경 정사, 정각사 주교 법일 정사가 신임 이사로 선임돼 참석했다.

이사회는 2021년도 학교회계 5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법인과 학교 회계 분

예산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사립학교법 준용에 따른 학교 정관 일부 개정을 이날 부로 승인했다.

이사회 후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신임 이사들과 함께 교무실을 방문해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교발전과 인재 육성에 함께 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동해중학교는 새 수학교과에 윤경수 2021년도 동해중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임용했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할 것'

제21대 국회 정각회 불교계 초청 신년법회 봉행



제21대 국회 정각회(회장: 이원욱 의원)가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청 신년법회를 3년 만에 처음으로 2월 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회 축사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교는 언제나 제일 앞에 있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불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박 의장은 또 "국회도 정각회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화해와 상생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려면 양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도, 화쟁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일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

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일원장),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 등 회장단과 BBS불교방송 이선재 사장, BTN 구분일 대표이사, 국회 정각회 부회장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 등 여야 의원,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정각회가 화해와 상생,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모범이 되는 큰 나무가 되길 기원했다.

사진=공공누리 제공

서구문명과 불교문화유산

지혜의눈

불교와 기독교, 그리스 미술이 공통의 기원 기층문화와 결합으로 소박한 형태로 나타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 문명과 불교의 관계는 매우 가깝습니다. 서양문명의 두 축은 기독교의 헤브라이즘과 그리스-로마 문명의 헬레니즘입니다. 알렉산더제국 이후 오늘날의 중근동 지방은 헬레니즘 세계에 포함되었고 공용어도 그리스어의 방언인 코이네어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약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인 코이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야훼를 섬기는 유일신교이고 그리스-로마의 종교는 다신교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리스-로마 문명에 기반한 신상(神像)들은 우상으로 간주되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으로 동쪽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후로 지금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인 간다라 지방에서 불교와 그리스 문명이 만나 불상이 비로소 출현하였습니다. 신상(神像) 조각의 전통은 그리스의 것이지만 주제는 부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두 문명의 융합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인간중심적인 사상체계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다라 지방에서 출토되는 불상은 완전히 서구인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서있는 자세도 그리스 미술의 절정기인 고전기에 확립된 콘트라포스트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상(立像)이 일반적이었던 그리스 조각에 비해 명상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의 특징상 좌상(坐商)이 많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그리스 미술과 기독교가 비로소 결합한 것이 르네상스기 이후였다면 간다라 지방에서는 그보다 천여 년이 빠른 기원전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의 관계보다 그리스 문명과 불교의 관계가 더 친연성(親緣性)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와 불교는 교리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만

교리의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인 그리스 미술을 공통의 기원(起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불교가 동진(東進)하면서 불상도 함께 중국으로 건너왔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점차 몽골리아의 특징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는 눈과 낮은 코 그리고 둥근 얼굴모습을 한 불상의 모습은 한중일 삼국의 불상의 공통의 모습입니다. 그 완성태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한국에서는 석굴암의 본존불입니다.

나아가 종교는 전파된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기층민의 문화와 결합하면서 소박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삼국시대에 가장 많이 만들어진 불상이 미륵보살상입니다. 구세(救世)의 미래불인 미륵의 하생(下生)으로 이상 세계인 율화세계가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땅을 일구는 틈틈이 주변의 돌을 쪼아 미륵불을 조성하였습니다. 투박한 미륵불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이어져 장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미륵은 민중 속에 들어가 속화(俗化)되어 남녀 한 쌍으로 조성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가 유럽으로 주로 르네상스 이후의 종교적 기념물들을 관람합니다. 유럽의 화려하고 눈부신 유물 유적이 우리의 불교 문화유산과 일부에서나마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구 문명은 자신들이 규정한 동양 문명의 특징을 우리에게 강요하였습니다.

근대화가 곧 서구화라는 논리를 우리는 이런 내용을 수용하고 내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 문명이 규정한 동양 문명에 대한 내용은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정체성과 타율성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그 극복의 첫 단추는 불교문화의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여행으로 얻는 견문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기비하가 아닌 넓은 이해와 깊은 애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BTN불교TV 제96회 이사회 개최

2022년 예산, 일부 자회사 업무 승인



BTN불교TV 제96회 이사회가 지난 2월 24일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사회에는 통일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BTN불교TV 회장 성우 대종사, 이사 정우 스님, 성문 스님, 흥파스님, BTN불교TV 구분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8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보고와 2022년 예산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또 이사회에서 자회사 불국토상조의 성장 우수성을 공유했으며, 산사에, 썬크비전은 문을 닫고, BTN투어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정치 상태에 있지만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의결했다.

불기 2566년 봉축 표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시청 앞 점등식 4월 7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표어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Back to the Life of Blossoming Hope)'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봉축 표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차대비한 부처님과 함께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개 개인의 건강과 국민극복을 발원하는 내용을 담은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청앞 봉축 점등식은 4월 7일, 서울 연등행렬은 같은 달 30일 동국대학교에서 어울림마당(연등법회) 후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가 있는 종각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점등 완료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줌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사원사

정성으로 일군 도량 ②

불꽃같은 교화를 이어가다

총지의 가르침을 전하려는 발걸음은 더욱더 바빠졌다. 1974년 7월 25일 서면선교부(관음사)를 시작으로 부산에 유가서원당(자석사), 자재서원당(법성사), 삼밀사, 덕화사가 세워졌다. 서울에 총본산 총지사 와 일광서원당(벽룡사), 대전에 법장서원당(백월사), 마산에광혜서원당(운전사), 울산에 정경서원당(실보사), 대구에 북혜서원당(제석사), 성남에 시복서원당(법전사), 광주에 원덕서원당(법황사), 영천에 인덕서원당(단음사), 진주에 선지서원당(화음사), 충무에 상락서원당(단향사), 그리고 1992년 부평에 정혜서원당(시법사)이 개설됐다.

1974년 10월 3일 경주 국광사에서는 종단 최초로 중고등학교회가 만들어졌다. 부모의 불심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누구의 지시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나섰다. 토요일마다 법회를 마치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학교별 회원 수를 헤아리며 할당 목표를 정하는 등 회원 확보에 열을 올렸다. 나무판자에 자연보호 캠페인 구호를 새기고 마을 곳곳에 게시하여 학생회를 알렸다.

다음해 원정 대성사가 직접 국광사를 방문하여 학생회기 수여식을 거행했다. 경주 국광사 학생회를 시발점으로 포항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으로 학생회 창립이 이어졌다. 학생회 법회를 마치고 회원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부처님오신날과 창교절이면 학생들이 선보이는 연극 등 다채로운 공연에 함박꽃 같은 웃음이 피었다. 타 종단 학생회와도 활발하게 교류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며 우의를 다졌다. 친선체육대회 때 교도들은 밥과

국과 반찬을 손수레에 실어 날랐다. 부모의 신심을 따라 불심을 키우고 새로 온 학생회원들은 가족을 서원당으로 이끌었다.

자성일 오전 10시가 넘으면 서원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봐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서원당 계단은 종종걸음으로 오르는 사람들로 미어터졌다. 일요일마다 물밀 듯 오고가는 행렬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불공을 드리고부터 가정일이 술술 풀리는 모습을 지켜본 이웃들은 누가 잡아끌지 않아도 먼저 나서 서원당을 찾았다. 처음에는 특별해보이지 않았던 평범한 생활법문이 생활 속에서 속속 이해되고 증명되자 불공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매일 출근하다시피 불공하는 열혈 교도가 늘어갔다.

특히 부산경남교구의 중심사찰인 정각사는 불꽃과도 같았던 종단 교화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불심의 고장이라 불리는 부산의 불자들을 총지의 진언 밀법으로 이끌었다. 밀려드는 교도들은 정각사 계단과 복도, 그리고 앞마당을 모두 채우고도 주변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장사진을 이뤘다. 곧바로 성화사, 관음사,

자석사, 법성사, 삼밀사, 덕화사로 퍼져갔다. 부산뿐 아니라 통영, 진주 등으로 교화도량을 넓혔다.

정각사가 교도들이 넘쳐나고 인근에 분원 형태로 사원을 개설하여 성공적으로 교화한 데에는 정각원 전수의 노고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되었다. 수많은 스승들이 이 곳에서 배출되어 신규 사원을 개척했다. 정각사를 시작으로 수인사, 만보사, 개천사, 운전사, 실보사, 제석사, 화음사 등 주요 도시에 자리한 서원당도 곧 인산인해를 이뤘다. 인근에서는 물론 멀리에서도 사원을 찾아왔다.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며 불공에 참여하던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 그 중에 몇몇 교도들이 발원했다. 종단에서 사원만 열여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지고 교화하겠다는 교도들이 늘었다.

더 이상 교도들을 수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서둘러 인근의 좀 더 넓은 공간을 모색했다. 계약하고 매입하고 서원당을 다시 여는 과정이 쉬울 리는 없었다.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옮길 곳이 정해지지 않아 몇 달씩 창고 등에서 임시로 법회를 보기도 했다. <다음호에 이어>



1981년 10월 29일 자석사 헌공불사 당시



1983년 실보사 불사를 위한 교도들의 울력



1985년 밀인사 지진불사



1980년 관음사 옛 모습



1980년대 부산 총지당

내마음의 등불

만보사 유가해 전수

무상無相

들어난 선과악의 상벌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화복이크며

사람이 칭찬하는 명예보다도 진리의 복덕성이 더욱더크며

마음이 넓고크며 동글고차면 일체가 광대하고 원만하리라

세계는 유상이라 한정있고 법계는 무상이라 한정없으며

명상이 있는 것은 한정있으나 명상이 없는 것은 한량이없네

착한 것을 남이 알고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죽어서 내세에 복과를 받아도 적고, 착한 것을 남이 모르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살아서 현세에 복과를 받아도 크니라.

유위 인을 지어서 무위과를 받고, 무위 인을 지어서 유위 과를 얻느니라.

유상불을 공양하면 극락이 먼지라 내세에 더디 과를 받고, 무상 불을 깨쳐 알면 극락이 가까운지라 현세에 곧 복과가 있느니라.

<종조법설집 제2절 수행 6.무상 편>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만보사 유가해 전수님은 수인사 정원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겐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BBS 부산불교방송
법경정사의 수요법문



법경 정사
(밀인사 주교, 철학박사)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선업이요, 짓지 않기 위해서 참는 것이 곧 선행입니다.

5. 바르고 고요한 마음을 갖는 수행 ‘인욕바라밀’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바라밀 실천 가운데 두 번째 수행인 지계행(持戒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계(持戒)란 계를 지키는 것으로, 몸과 마음의 청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정한 생활은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몸을 다스리고, 입과 말을 제어하는 것은 그나마 어렵지만은 않은데요. 가장 힘든 것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욕심내거나 화내지 않는 것도 어렵고, 분노에 따른 폭력과 폭행을 순간적으로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러한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짐을 한다고, 맹세를 한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으로부터 받는 멸시나 모욕, 비난의 욕(辱)됨을 참기 어렵고, 또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탐심(貪心)과 진심(瞋心)을 잠재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욕됨을 이기고 마음 다스리는 것이 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실천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욕(忍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욕은 참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엇을 참는가 하면, 욕(辱)됨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욕(辱)이란 욕설(辱說)의 줄임말인데요.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나,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는 말, 인격적으로 당하는 수치스러운 말을 가리킵니다. 비방과 험담 등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인욕이란, 남이 나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능히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훼손하는데 이를 참는 것이 인욕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진심과 원망심을 이겨내는 것도 인욕에 들어갑니다.

즉, 화나고 짜증나는 일을 참는 것이며,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도 인욕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불선(不善)한, 좋지 못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 모두 인욕입니다.

인욕(忍辱) 외에 안인(安忍)이란 말이 있

습니다. 이 둘을 굳이 구분한다면, 인욕(忍辱)은 그냥 참고 이겨내는 것이라면, 안인(安忍)은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도 않아도, 저절로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힘과 용을 써가며 억지로 참지 않아도 저절로 참아지고 견디어지는 것이 안인입니다.

‘세상에 그런 안인행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참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저절로 쉽게 참아질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닦아서, 크고 동글고 가득 찬 마음이 되면 충분히 안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으로서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그 정도의 경지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고 발심하지 않을 뿐입니다.

인욕과 안인을 비교하자면, 인욕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이 안인(安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인(安忍)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왕에 우리가 인욕을 행한다면, 저절로 참아지는 안인의 단계에 오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인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공부를 단단히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 안인을 행하는 공부가 바로 기도이고 불공이요 수행입니다.

생활 속에서 무엇이 안인(安忍)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욕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왕따를 시켜도 개의치 않고 마음에 분심(忿心)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안인입니다.

비유하자면 다른 사람이 마치 송곳으로 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과 같이 말로써 내게 고통을 준다고 하여도 화내지 않고 폭력을 쓰거나 되갚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참기는커녕 당장 되갚아 주려는 마음뿐이고 복수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앙심을 가슴 속에 품고서 언젠가는 기어이 되갚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못한 것은 바람으로 날려 보내고,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바람과 물에는 걸림이 없습니다. 그물과 걸림이 없으므로, 내 마음 속의 악심(惡心)과 분심(忿心)은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욕입니다. 더욱 무르익으면 그것이 안인(安忍)이 됩니다. 또 ‘인욕’은 어떤 박해나 곤욕을 참고 용서하는 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고통을 참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고통을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여서 원함과 노여움을 용서와 평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감수법(甘受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겉허히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들이면 바로 고통과 원함과 노여움은 눈 녹듯 없어지거나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이를 불교수행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오

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에게만 ‘화병(火病)’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는 것도 잘못하면 병이 됩니다. 바로 화병입니다. 그래서 마냥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화를 내어서도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리는가. 그것은 불교공부를 반복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양약이나 한약으로 다스리기보다 마음공부를 통해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음공부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마음공부 속에서 참을 줄 알아야 인욕의 참 공부가 되고, 화병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진리를 깨침으로써 집착과 편견을 다스리고 일체가 고(苦)임을 자각하는 데서 고(苦)는 줄어듭니다.

참는 것이 부족하면, 분노조절장애를 일으켜 중국에는 찌지 못할 악행을 저지르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진심과 원망심을 이겨내는 것도 인욕 인토(忍土)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것이 정토(淨土)가 되는 것

로지 불도(佛道)를 이루고자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장(魔障)과 맞서 싸워 이겨내고 참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욕이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주하는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인욕을 행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기감정에 못 이겨 악심과 분심을 일으키고 맙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성내고 언짢은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표출하고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한 중생세계를 인토(忍土)라고 합니다. 참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토인 것입니다.

또 당연히 참고 이겨내어야 하기 때문에 인토(忍土)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이겨내어야 합니다. 인토(忍土)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것이 정토(淨土)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참는 것에 익숙해져, 하나의 병처럼 규정되어 있는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을 인(忍)을 세 번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참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값진 실천행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근(六根)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욕이고, 기도이자 불공입니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감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맙니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은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 결국 수없이 악업을 짓게 됩니다. 선업의 씨앗을 잘라버리니 첫 번째 악업이요, 그 행동으로 또다른 악과보(惡果報)를 일으키니 이것이 두 번째 악업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노여워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허물어 없어질 것인데, 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속을 끓이고 있습니까?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하므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 깨칠 때 악심(惡心)과 비심(非心), 부정심(不淨心)과 탁심(濁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욕을 행한다는 것은 곧 정심(正心)과 정정심(正定心)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심(正心)과 정정심(正定心)은 바른 마음,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이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좋고 나쁨에 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욕이란 마음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와 불공을 통해 정심(正心)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심(正心)을 갖는 것이 곧 인욕행의 시작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5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환인현 남관은 밀양과 비슷한 곳이다. 길림성 백산시 주변에서 발원하여 1,000리를 굽이쳐 흐르다가 환인현에 이르러 잠시 마을을 에워싸고 다시 남쪽 압록강에 합류하는 훈강(훈강, 渾江)이 흐른다. 남관은 환인현의 남쪽 지역으로 강과 가까이 있어 농사 짓기 적합한 곳이다.

밀양강이 굽이치다가 낙동강과 합치는 모양과 흡사한 지형으로 고향 삼아 터를 잡을 만한 곳이었다.

환인현은 조선에서 월경한 조선인들이 처

근근이 살아갈 수 있었다.

그나마도 대부분 만주족의 토지라 소출의 절반 이상, 삼분의 이 정도를 바쳐야 소작으로 농사지를 땅을 얻을 수 있었다. 대성사 가족 또한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다. 어린 대성사 형제도 돌을 나르고 밭을 가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모두가 매달려야 곡식 일곱 말 한 뼉이라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가집을 짓고 돌담을 쌓았다. 평생 양반으로, 대대로 벼슬에 나섰던 무반의 자손으로 명망과 부귀를 누렸던 대성사의 부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 어린 자식까지 메마른 만주 바람을 맞으며 노동을 해야 하는 삶은 거칠고 힘겨웠다.

대성사 여동생이 남긴 회고담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지은농사는 옥수수, 콩, 감자에 조라고 했다. 그것도 일가족이 다 나서서 쉽

일본 밀정들의 움직임도 왕성했다. 얼마나 많은 밀정들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봉천 일대가 독립운동의 중심지란 소식을 듣고 만해 한용운이 1912년에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러 서간도로 건너왔다. 낯선 인물이 독립운동가들을 탐문하고 다니자 만해를 밀정으로 의심한 독립군은 총격을 가하였고, 천만 다행히 만해는 목숨을 건져 돌아갔다. 그만큼 흥흥하던 시절에 대성사 가족도 서간도에 정착한 것이다.

1910년대 서간도의 생활은 참혹했다. 이주해 온 조선인들은 풍토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했다. 중국 지주의 수탈, 군벌과 도적떼의 약탈도 망명객들을 괴롭혔다.

이주민과 망명객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먼저 자치 기구를 만들고 교육기관을 설

한교공회, 일제 침략기관 습격과 앞잡이 처단에 앞장 척박한 삶 속에서도 학교를 세워 민족정기를 가르쳐

음 정착하는 땅으로 서북쪽으로 봉천(奉天)이 있고 동북 방면으로 통화시(通化市)와 백산시(白山市), 북쪽으로 장춘(長春)과 지린(吉林, 길림)이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다.

동쪽으로 더 나아가면 연변(延邊, 연변)이고 서북으로 헤이룽장(黑龍江, 흑룡강)이 있는 복간도 땅이다. 환인은 서간도 입구의 요충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일군과 맞선 독립전쟁의 최전방 전선이었다.

불모지였던 땅에 정착한 조선인들은 훈강의 물을 끌어들이며 만주 땅 최초로 논을 개간하여 벼를 심었다. 일일이 손으로 돌을 골라내 밭을 일구고 옥수수와 귀리, 기장 따위를 심어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 농사를 지어

없이 땅을 고르고 일구어 겨우 연명할 양식을 거둘 수 있었다. 사립문 밖에는 손수 일군 옥수수가 강변까지 길게 밭을 이루고 있었다. 거친 곡식이지만 이곳에서 식솔을 건사하고 후일을 도모하기에는 모자라지 않은 나날이 이어졌다.

살과 보리는 구경도 할 수 없었지만 그곳엔 노예를 벗어난 자유가 있었다. 그런 척박한 삶 속에서도 서간도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학교를 세워 민족정기를 가르치고, 독립군을 키워냈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정신은 뺏기지 않았고 하루도 항쟁을 멈춘 날이 없었다. 서간도 일대는 독립세력의 중심지이며 상해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인 서로군정서가 있던 곳이라

립했으며 곧이어 독립군을 양성해 군사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손기현은 당시 망명객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다. 동지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기꺼이 나서서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자치 기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섰고 동포가 어려움을 당하면 몸소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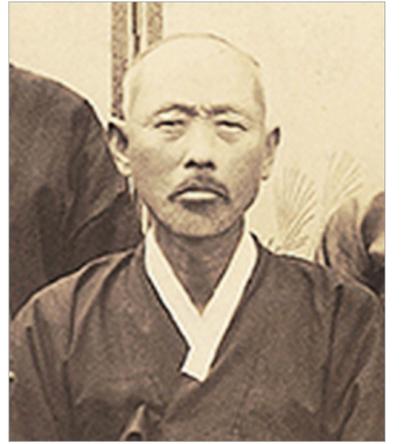
때문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와 연관된 서간도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인 서로군정서 산하 조직인 한교공회(韓僑公會)에서 외교원(外交員) 신분으로 일하게 된다. 한교공회는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성좌 윤세용(聖佐 尹世堯)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세운 임시정부 산하 무장독립투쟁 단체이다.

대성사 부친, 독립군에게 무기를 조달하다

“

나라를 빼앗겼지만
정신은 뺏기지 않았고
하루도 항쟁을 멈춘 날이
없었다.

”



대성사 부친 손기현 선생

손기현의 집은 독립운동가를 위해 밥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 독립군이라면 누구나 손기현의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배불리 먹고 용기와 힘을 내 일본군과 맞서 싸우자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한교공회는 대성사 가족이 머물던 환인현(桓仁縣) 마권자(馬圈子)에 본부를 두고 서간도 곳곳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설립 목적은 일제 침략기관을 습격하고 앞잡이들을 처단하는 일이었으며, 만주 일대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대성사 부친이 맡은 외교원은 러시아 및 만주 군벌들과 교섭하여 독립군을 위해 무기를 조달하는 임무였다.

러시아 내전에 참여했던 체코슬로바키아 군단, 일명 체코군단이 해산되어 1920년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때 그들의 무기 대부분을 독립군들이 사들이게 된다. 대성사의 부친은 권총과 기관총, 탄약과 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독립군에 공급하였다.



종조 일대기 편찬 중 대성사 부친 손기현(孫基賢, 1883~1942) 선생이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군으로 활동하였으며, 2016년 후손 미상의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바 있다. 유가족은 1년 여간의 노력으로 지난해 광복 76주년을 맞아 고인의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전달 받았다.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2년 1월 1일 ~ 5월 31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종

불공법과 의궤 확립, 한국밀교 의식의 기초를 닦다

총지종의 역사

01. 전사 : 정통밀교종단의 발아 한국밀교종단의 첫걸음 ①

고려시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한국 밀교를 이 땅에 새롭게 뿌리내린 불교총지종. 1947년 대한불교진각종, 1954년 대한불교진언종이 창종됐으나 정통밀교로서의 사상과 교리가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 원정 대성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각종에서 20여 년간 진력했고 1972년 불교총지종 창종으로 원대한 뜻을 펼쳤다.

민생고와 정신적 공황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정법으로서 밀교의 가르침을 펼친 원정 대성사. 대성사의 원력은 곧 한국 밀교의 중흥으로 나아갔다.

근현대사의 격랑 속 대성사

원정 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 다죽리에서 부친 손기현 님, 모친 이근호 님의 2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나라 잃은 후 대성사의 가족은 1912년 망명길에 올랐다. 서간도에 정착한 부친은 서로 군정서 산하 무장독립투쟁단체인 한공교회에서 외교원 신봉으로 독립군의 무기를 조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대성사의 초가삼간

집은 독립군의 집회장소가 됐으며 모친은 옥수수 밭을 일구고 감자 등을 심어 가족과 동지들을 챙겼다. 마나면 이국땅에서 생존을 위해 술한 고난을 겪고, 나라를 위해 대의에 앞장선 독립운동가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자란 대성사는 과묵하면서도 진중한 성품을 키워나갔다.

1920년 일본군은 서간도 일대의 독립군 90명을 체포하였고 이때 부친과 형이 끌려갔다. 형은 며칠 후 풀려났으나 모친 고문으로 평생의 지병을 얻었고, 부친은 악랄한 고문과 재판관을 받은 끝에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석방 이후에도 일본군과 밀정의 감시와 탄압이 이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북쪽으로 떠밀려가기를 거듭하다 1922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불교 관련 책과 경전을 탐독

밀양 백산리에 정착한 대성사는 1924년 대구 유일의 민족학교인 교남학교 고등과에 진학했다. 1927년 졸업 후 강숙이(불명금강관) 님과 결혼하고 1936년 경남 함양군

학교비위위원회 서기로 취직하여 교육예산을 관리했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이 극심해지고 특히 전시동원을 위해 학교물자를 징발하고 인원을 징용하라는 훈령에 순응할 수 없었던 대성사는 서기직을 사직하고 1940년 하얼빈으로 이주했다. 지방법원에서 대서 업무를 맡다가 이듬해 사촌의 제안으로 정미소를 공동 운영하며 도정조합과 미국 배급조합 이사장을 맡아 사사로움 없이 일을 처리했다. 이때 중국과 일본 불교계의 새로운 흐름에 주목하며 불교에 관심을 갖고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조국의 해방을 예견하고 1944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적십자사 경남위원회 군서기로 근무했다. 해방 후에는 밀양공립농잠중학교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불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했다. 좌우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지켜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길이 있다고 확신하고 불교 관련 책과 경전을 탐독했다.

중생 구제, 대자비의 서원

어려서부터 성품이 남달랐고 놀라운 기억력과 문필력을 갖춘 대성사는 생계를 위해 관계와 교육계에서 일하는 틈틈이 불교경전에 전착했다. 한국전쟁의 참혹함과 중생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한 후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자비의 서원을 가슴에 품었다. 한국전쟁의 소용돌이는 대성사에게도 휘몰아쳤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아들의 행방이 묘연했다. 한순간에 소식이 끊긴 아들의 행방을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허사였다. 자식의 생사를 찾아 해매던 중 우연히 한 보살로부터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옴마니 반례함을 염송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날부터 간절하고 지극한 일념으로 기도했다.

대성사의 아들은 피난길에 떠밀리다 강제로 의용군에 끌려갔고 포로로 잡혀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영천 포로수용소를 전전했다. 한 번은 포로수용소 내에서 서슬 퍼런 인민재판이 열렸을 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 대성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도왔고 대성사의 부친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실을 알려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목숨이 경각



진각종 총인 시절의 원정 대성사

에 달려있는 순간들을 술하게 겪었지만 원정 대성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듯 훗날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

회당 손구상 대종사와의 만남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대성사의 모습은 금세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다. 도인이 났다는 소문이 인근에 퍼다했다. 기도 일념일 때는 물론이고 일과 중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얼굴과 눈에서 빛이 났다. 대성사를 만나려고 집과 학교로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갔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회당 손구상 대종사가 밀양으로 직접 찾아왔다. 두 성인은 단번에 마음이 통했다. 1947년부터 경북지역에서 '참회원'을 열어 육자진언염송의 공덕과 참회로서 병고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던 회당 대종사는 천군 만마를 얻었다.

원정 대성사는 신흥종단의 교리적, 역사적 정체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적임자였기 때문이다. 회당 대종사는 자신은 바깥일을 도모할 테니 안으로 교리와 수행체계 및 교단을 정비해달라고 부탁했다. 함께 밀교 교법을 펼쳐 종단을 일으키자고 했다. 두 성인은 손을 맞잡고 중생제도에 전념했다. 대성사는 1953년 밀양공립농잠중학교 행정관 일을 접고 회당 대종사가 주석하던 서울 왕십리 심인당에서 교화를 시작했다.

진각종 초대 사감에 오르다

1954년 시비와 분란 끝에 '대한불교진언종참회당교도회'가 결성되고 범정다툼까지 발생하자 흔들리는 교단을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했다.

대성사는 1956년 진각종 초대사감으로서 각종 규정을 만들고 업무를 정비하여 내부의 불협화음을 바로잡았다. 1957년부터 역경사업의 틀을 잡고 '심인불교 금강회 해인행' 출판사를 설립하여 경전 간행 업무를 시작했다. 한문 경전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영어 문헌까지 찾아 경전을 선정하고 우리말 번역을 시작했다.

회당 대종사가 사원 건설과 대중 교화에 매진하는 동안 원정 대성사는 종단의 교리와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

회당 대종사가 주축이 된 심인불교(心印佛敎)는 밀교를 표방했지만 부족함이 많았다. 교법을 정비하고 조직과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했다.

간략하게나마 한국 밀교의 역사를 정리한 『총지법장』을 비롯해 『법불교문』, 『응화방편문』, 『응화성전』 등 한글 위주의 경전과 교리서를 편찬하고, 진각(眞覺), 심인(心印), 심인당(心印堂), 정사(正師), 전수(傳授), 총인(總印) 등의 핵심적인 용어를 창안하여 종단 체계를 정립했다. 각종 불공법과 의궤, 진언의 규정을 확립하여 한국밀교의식의 기초를 닦았다.



진각종 <교의 해설> 대성사 목필

뮤지컬 **싯다르타** The Life of Siddhartha

인류 최초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

시대를 초월한 압도적 존재감
뮤지컬 싯다르타 2022년 화려한 귀환!

신유, 박시원, 박시환, 고유진, 윤형렬, 윤진웅, 간미연, 권미희, 박혜민 등
장르를 뛰어넘는 초호화 캐스팅!

뮤지컬 '싯다르타'가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을 시작으로
순천, 부산, 대구 등 지방 투어를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SIDDHARTHA
싯다르타



신유 박시원 박시환

MARA PAPIYAS
마라 파피야스



고유진 윤형렬 윤진웅

YASODHARA
야소다라



간미연 권미희 박혜민

2022년 3월 8일(화)~4월 3일(일)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평일 저녁 7시 30분 | 주말 오후 2시, 저녁 6시 30분 (월요일 휴)

문의 : 1661-4191 예매 : **INTERPARK** 티켓 **YES24.COM** 티켓

지방투어일정 | 2022. 4. 8~4. 10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순천(광주, 전남)
2022. 4. 15~4. 17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부산(경남, 울산) | 2022. 4. 22~24 아양아트센터 - 대구(경북)

주최 (주)엠에스엠시, kpm 한국-네델란드 음악교류협회 주관, 제작 (주)엠에스엠시 후원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한불교조계종 동국대학교 BBS 불교방송 BTN NH농협은행 새마을금회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티벳을 이끈 지도자 판첸라마 롱상최기겔첸

생명과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고 사바세계에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인간세계에 영원히 태어나겠다는 보현행원의 서원은 티벳인들에게 낯익은 현실이다. 티벳을 여행하고 대사원의 법회에 동참하다 보면 무수한 보현보살의 화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40년전 다람살라 남갈사원에 달라이라마 14세 성하의 법회가 있던 날이 있었다. 도량을 채운 인파 가운데 대중들이 비껴가는 공간이 있었다. 한국의 이방인은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 싶어 인파를 헤집고 접근한 결과 그곳에는 실망스럽게도 낮잠을 자는 성

가며 깔라차크라판뜨라와 마하무드라를 비롯한 주요 밀교수행을 배웠다.

고향인 벤사로 돌아온 후 사원과 불탑을 건립하고 『보리도차제론』을 비롯한 강연에 힘썼고 1601년 명성이 티벳에 널리 알려져 벤사사원을 비롯해 간첸첸펠의 주지를 맡는 등 소임이 확대되었다.

제4대 달라이라마인 온뎨가초(1589-1616)를 만난 후 함께 여행하였으며 이윽고 친교사가 되었으며, 1612년부터 부탄과 네팔을 오가며 겔룩빠의 불교를 크게 선양했다. 제4대 달라이라마의 입적 후 주요한 겔

룩빠 사원의 주지에 임명되었다. 차지역의 왕으로부터 임무를 받아 롱상가초라는 어린아이를 제5대 달라이라마로 지목하였다.

1621년 몽골의 침략을 받아 티벳이 위중한 상황이 되었지만 지혜롭게 티벳을 이끌어 오히려 제5대 달라이라마때 티벳은 겔룩빠의 전승을 중심으로 크게 세력을 확장하였다.

롱상최기겔첸은 몽골의 알탄칸으로부터 성인을 뜻하는 '보그드 bogd'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존경 받았으며, 청조 중국황제로부터도 대대로 깊은 귀의를 받았다. 달라이라마 5세는 스승 롱상최기겔첸으로 하여금 초대 달라이라마가 건립한 따시룽뽀사원의 주지를 맡을 것을 청하였고 이후 판첸라마들은 마지막 제11대 판첸라마인 롱상최기니마에 이르기까지 따시룽뽀사원의 주지가 되었다.

최초 판첸라마는 티벳 시가체 차지역을 다스리는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하였고, 종교적으로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판첸라마는 명망있는 학자로서 제4대 달라이라마와 제5대 달라이라마뿐만 아니라, 부탄과 몽골의 유수한 라마들을 가르쳐 무수한 학자들을 길러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저술에도 힘써 백여권에 이르는 현교와 밀교의 주석들은 남겼다. 그의 저술들은 오늘날 겔룩빠 사원의 교재로 삼고 있으며, 특히 「겔룩 전승의 보배인 마하무드라 분송」과 이에 대한 자신의 주석은 겔룩빠뿐만 아니라 까규빠에도 중시되었다.

달라이라마 5세는 스승 롱상최기겔첸의 입적에 즈음하여 인간세상을 위해 다시 환생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승은 1662년 91세(또는 92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달라이라마 5세는 스승의 입적 후 환생을 찾아 제5대 판첸라마로 롱상예세(1663-1737)를 옹립하였다. 덧붙여 초대 판첸라마로는 쯡카빠의 제자였던 케둑제 겔렉뽀상(1385-1438)을 재세우고 이후 제3대 판첸라마를 지정하였고, 스승 롱상최기겔첸은 제4대 판첸라마가 되었다.

제5대 판첸라마인 롱상예세는 위대한 학승이었지만 몽골과 만주, 그 뒤를 잇는 청조의 탐바구니에서 외교적으로 티벳을 지키느라 어지간히 노력하였다. 그 정치외교적 혼란은 동아시아의 판도변화에 의한 것으로 17-18세기 조선조가 겪었던 혼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근대 제10대 판첸라마인 틸레룽뽀최기겔첸(1938-1898)과 11대 판첸라마인 롱상최기니마는 인간적 삶으로서 티벳과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티벳의 지도자를 통제하려는 중국의 야심은 제10대 판첸라마를 평생 구금하였

고 말년에 귀국 후 의문의 독살을 당하였다.

1989년 달라이라마 정부에 의해 제11대 판첸라마로 지목된 롱상최기니마는 중국에서 6살 되던 1995년 5월 17일, 중국공안에 의해 부모와 함께 납치되어 아직까지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신 중국정부는 동갑내기 겔첸뽀를 제11대 판첸라마로 옹립하여 30살을 넘겼지만, 그도 개인적으로 여행의 자유나 공식적인 대화가 금지된 채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2022.2.24)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인류는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간 힘의 질서는 냉엄한 현실이다.

소련해방 후 한때 강대국으로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며 인류평화에 동참했던 우크라이나는 냉전의 여파라는 냉정한 현실을 외면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 전체주의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자발적 생명가치의 실현과 공존할 수 없다. 종교적 환희의 향연과 석가모니부처에 의해 시작된 불법수호의 다짐이 정치외교적 인간사의 갈등으로 빛이 바래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판첸라마, 달라이라마 다음의 티벳불교 스승 일컬어 1612년부터 부탄과 네팔 오가며 겔룩빠의 불교 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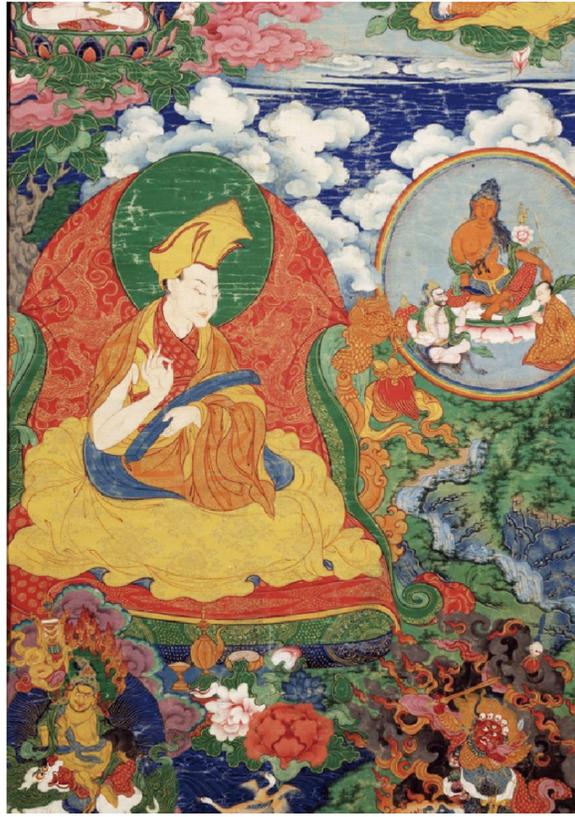
견이 한 마리 있었다. 처음엔 실망했지만 아무도 개의 오수를 방해하지 않았던 그 장면은 나의 보이지 않는 스승이 되었다.

달라이라마 다음으로 티벳불교 겔룩빠를 이끄는 스승으로 판첸라마의 전승이 있다. 최초 판첸라마는 달라이라마 5세의 친교사였던 롱상최기겔첸(Lobsang Chökyi Gyaltzen, 1570-1662)이었다. 롱상최기겔첸은 차지역 란(Lhan) 계곡의 '독가'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명망있는 '바(sBa)' 부족 출신인 썩계예세의 사촌인 풍가외셀이었고 어머니는 조젤이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름은 조켈뽀덴상뽀였으나 고승 랑막빠최기겔첸에 의해 유명한 라마였던 벤사빠롱상뽀(1505-1566)의 환생으로 인정받은 후 최기겔첸으로 이름을 지정받았다.

젊을 때 썩계예세로부터 공부하였고 전생에 주지로 있던 벤사빠사원과 훗날 따시룽뽀사원의 주지로 임명된 후 양 사원에서 주석하였다. 13세에는 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나 수학하였으며 18세 처음 따시룽뽀사원의 토삼링 승원대학에서 밀교수행인 마하무드라를 배웠다. 1591년 티벳의 수도인 라사를 방문하여 조강사원과 간첸사원을 오

를 방문하여 조강사원과 간첸사원을 오



제4대 판첸라마+롱상최기겔첸(원:18세기, 오:19세기)루빈박물관소장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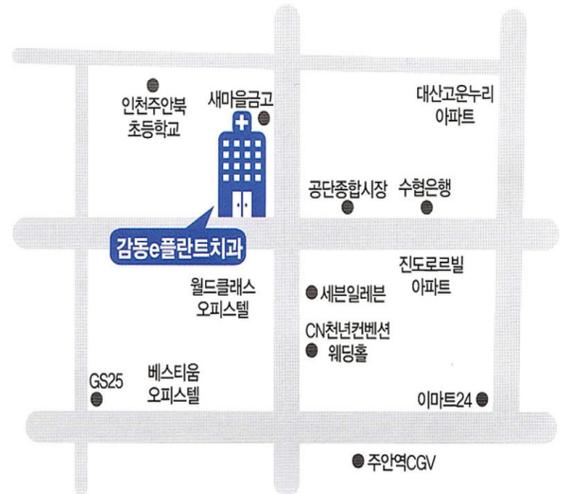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밀교의 심(心)과 형(形) ②

각번(覺變)은 『심월륜비석(心月輪秘釋)』에서 월(月)의 특성을 서른 가지 뜻(三十義)으로 묶고 그것을 육문(六門)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심(心)과 월(月)의 공통의 특성을 전개해 나간다.

육문은 일심(一心)·양호(兩號)·삼밀(三密)·4만(四曼)·5부(五部)·6대(六大)이다. 이러한 1에서 6의 수에 빗대어 교의를 해석하는 방법은 『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에서 여섯 가지로 파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육문의 해석 속에서 각번은 『흠자의(卍字義)』 『다라니의찬(陀羅尼義讚)』 『사만의구결(四曼義口訣)』 『즉신성불의(即身成佛義)』 등을 인용해 사상적 근거를 찾아내고 있다.

먼저 월(月)의 뜻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자종자(字種子) 밤수과실(水果實) 원만구족(圓滿具足) 최상결백(最上潔白) 청정무구(淸淨無垢) 이열청량(離熱淸涼) 명조파암(明照破暗) 독존유일(獨尊唯一)’

최고광대(最高廣大) 단정수묘(端正殊妙) 애락환희(愛樂歡喜) 처중이변(處中離邊) 초침정부(超沈定浮) 유공이지(遊空離地) 자재무애(自在無礙) 순전무궁(巡轉無窮) 상진불퇴(常進不退) 속행질입(速行疾入) 능성생장(能成生長) 발고여락(拔苦與樂) 견미현실(遣迷顯實) 일체보현(一體普現) 적정부동(寂靜不動) 섭입무애(涉入無礙) 평등무차(平等無差) 능강정수(能降淨水) 난견과측(難見巨測) 능섭소의(能攝所依) 부증불감(不增不減) 불생불멸(不生不滅)

위와 같이 원만구족·불생불멸 등의 서른 가지 뜻으로 정리한다. 서른 가지로 뜻을 정리했지만 ‘제각각 천 가지 이치를 함의(各含千理)’하고 있어 월의 뜻은 무량하다.

이어 심과 월이 둘이 아닌 것(心月不二)으로 유인하기 위해 월(月)의 뜻 속에 심(心)의 특성을 접어넣는다.

‘월(月)의 원만함과 같이 자심(自心)도 이지러지지(關) 않으니 만덕을 구족하여 종지(種智)를 원만하게 하고 월(月)의 결백과 같이 자심도 백법(白法)이니 오래도

록 흑법(黑法)을 떠나 항상 백선(白善)을 일으킨다.

월(月)의 청정함과 같이 자심도 무구(無垢)이니 자성정정으로써 무탐무염(無貪無染)해 진다...’

앞의 원만구족, 최상결백, 청정무구가 각각 정묘하게 월과 자심의 특성으로 배분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월을 가지고 심에 비유하는 송(頌) 스무 개를 언급한다.

심이 열반하듯이 월도 또한 원적한다. 심이 보리이듯이 월도 곧 통지(通知)이다.....

이렇게 해서 심과 월의 일체성이 서술되었고, 그 다음에 심과 월을 합쳐 논한다. 여기에는 『유기경(瑜祇經)』 『교왕경(教王經)』 『금강정경』 『심지관경(心地觀經)』 『섭진실경(攝眞實經)』 『보리심론』 『대일경』 『반야심경비견(般若心經秘鍵)』이 인용되어 심월불이, 색심불이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월로써 심에 비유하여 공월(空月)과 심월(心月)의 차별을 논하고 마지막으로 관수(觀修)를 설파한다.

이 관수에 대해서는 『심지관경(心地觀經)』 『선무외삼장선요(善無畏三藏禪要)』 『삼매야계서(三昧耶戒序)』 『비밀삼매야불계의(秘密三昧耶佛戒儀)』 『보리심론』 『일자정륜왕성불의궤(一字頂輪王成佛儀軌)』 등을 인용한다.

이처럼 『심월륜비석』에는 공해 저작이 중심이 되어 색심불이 사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공해가 언급하지 않은 『심지관경』과 『총석다라니의찬(總釋陀羅尼義讚)』 『섭진실경』을 참조하여 각번은 색심불이 사상을 전개한다.

『심지관경』에는 ‘월즉심 심즉월’이라는 심과 월이 둘이 아닌(心月不二) 경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각번에 의해 그 의미가 언급된다.

‘무릇 심리(心理)는 색상과 따로 떨어져 있거나 색상이 심리가 아닌 것은 표덕현실(表德顯實)의 뜻이 아닌 자정견미(自情遣迷)의 의미로 알 수 있다. 색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진망(眞妄)과 가실(假實)이다. 지금 끊고 떠나(絶離)는 것은 이 망가(妄假)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진실을 떠나지 않는 망가(妄假)라 함은 일심연기의 색상, 제식소변(諸識所變)의 영상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법신·법이의 삼색(三色, ※三密), 성불·성연(性然)의 사만(四曼)이다. 그러므로 자성이 상주함으로 사상(四相)을 초과하고 체용(體用)이 광대(廣大)하여 시방으로 두루 미친다.

덕(德)을 만 가지로 갖추고 익(益)을 천 가지 그릇에 채운다. 색상은 이미 만덕을 갖추어 일여(一如)이니 어찌 심리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가. 심리 또한 육대(六大)를 체(體)로 만 가지이니 어찌 형상을 떠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즉 색은 심이고, 즉 성(性)은 상(相)임을 알라. 월밖에 심 없고, 심밖에 월 없다. 경 속에 이미 월즉심심, 심즉시월이라고 설하니 어찌 이 뜻이 아니겠는가.

색과 심이 본래 함께 있는데 어떤 것이 주체와 객체의 분별 집착을 일으키는가. 사리(事理)가 심비(深秘)하게 같으니 어찌 우열의 이견을 일으키겠는가. 색심불이이니, 이를 제불내증의 범문이라 이름 붙인다. 성상즉일(性相即一)이니 이를 사신자각(四身自覺)의 경계라 칭한다.’

심리와 색상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색심불이는 제불의 내증의 범문이라고 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정(友情)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자식과 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존경(尊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며, 기업과 기업간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기업 윤리가 무너져서 거래(去來)가 끊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속이란 이렇게 중요한 실천 덕목인데 사람들은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과 한 약속엔 부담(負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하물며 나를 믿어줄 사람은 더군다나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는 너무도 바쁜 일상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서두르는 경향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뛰어가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늦지 않게 미리 앞서서 가고 어차피 늦을 거라면 뛰어가지 말고 그냥 걸어서 가십시오.

후회할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였다면 절대 후회(後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은 박사(博士)보다 살아있는 명칭이 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말이 떠돌아다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국가(國家)의 자식이 되고, 그다음으로 잘 키우면 장모(丈母)의 자식이 되며, 적당히 잘 키우면 내 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下水道)가 막혔다고 또는 전구(電球)가 나갔다고 외국에 있는 아들을 부를 수 없고 멀리 있는 자식을 부를 수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 년에 겨우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고 평생에 한두 번 볼 수 있고 사진을 통해서나마 겨우 만날 수 있는 손자들은 내 손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래서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사나이는 울어도 눈물이 없으며 사랑은 불타도 연

기가 없다고 했던가요?

사랑 이야기를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영어 단어 중에 “Family”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언어 조탁이긴 하지만 “Family”의 어원을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의 첫 글자들을 합성한 것이지요.

모든 구성원들이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함께 실천하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삼년(三年)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삼십년(三十年)이 행복하며, 지혜(知慧)로운 여자를 만나면 삼대(三代)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물론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세 시간의 행복이 보장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통장 세 개의 행복이 보장되며,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평생(平生)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말할 합니다.

이렇듯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 소박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권세(權勢)와 명예(名譽), 부귀영화(富貴榮華)를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을 청렴결백(淸廉潔白)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가까이하고서도 이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청렴(淸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모술수(權謀術數)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高尚)하다고 말을 하지만 권모술수를 알면서도 이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더 고상한 인격자(人格者)라고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삶을 생활화하며 청렴한 인격자에 약속을 소중히 할 줄 알며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시인 前동해중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월 21일 ~ 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 7668610, 우리은행: 122-177171-13-104, 예금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Donor Name, Amount, Date, and Donor Name.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s to the Buddhist Welfare Foundation.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8>

운명론에서 대자유로

며칠 전에 길을 가다 점집 앞에 고급 승용차가 즐비하게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년이 되고 대선과 지방 선거가 있어서인지 점집이 문전성시더군요. 심지어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족들도 사주, 점 등 무속 신앙에 가깝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서도 점을 보거나 굿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이나 굿을 엄청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한국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에 관계없이 사머니즘적인 무속 신앙에 가깝다고 평하더군요. 실제 200년 역사의 기독교나 1,700년 역사의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조상신이나 당수나무, 산, 돌을 믿고 안녕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신앙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이자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이 개명한 과학 기술과 지식정보시대에 무속에 의존하여 자기 운명이나 진로, 나아가 국가 대소사를 결정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불자라면 이 사주 관상이나 점 같은 무속 신앙에 대하여 정견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생사고해(生死苦海)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잡아함」 「점복녀경(占卜女經)」에서 만약 점을 봐준다고 남을 속인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불교의 점이나 사주, 관상에 대한 입장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듯 명확함에도 우리나라 절에서는 사주, 관상, 점을 봐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중생을 위한 방편이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저렇듯 단호하게 지옥에 갈 악업을 짓는 일이라 하셨으니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지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왜 점을 보거나 봐주시 말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운명론을 부정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사성 카스트제도가 있어서 브라만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은 브라만이 되고, 천민가에서 태어나면 천민이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인물이 뛰어나도 천민은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브라만들은 이 계급사회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브라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업으로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천민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못해서 천민으로 태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런 브라

만교의 운명론과 확정된 윤회설을 부정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의 해탈과 행에 따라 과보를 받는 인과법(因果法)을 설하셨어요. 이것이 불교의 특색이고 가치입니다. 불교는 결정된 운명론을 부정하며 깨달음을 통하여 해탈, 대자유로 가는 종교입니다. 사주나 관상, 점 같은 운명론이나 미래 예언설을 부정하며 오직 지금 행하는 대로 받는다는 인과연기설(因果緣起說)의 종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참된 불자라면 사주, 관상과 같은 운명론이나 점 같은 예언설에 현혹되어선 안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주, 관상, 점 같은 것을 보거나 봐주는 사람 모두 지옥 간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은 대로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초조 불안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연에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정견을 세우고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한 자리아타행(自利利他行을) 한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말고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석관실버, 두뇌건강증진센터 공동 운영 의대생봉사동아리 '메디하나'와 업무 협약



왼쪽부터 임현승 학생, 최지민 학생(회장), 나석원 센터장, 박하민 학생(부회장), 김준하 학생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 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지난 9일 의대생 연합 봉사동아리 '메디하나'와 「두뇌건강증진센터」 공동 운영 및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관실버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의대생연합봉사동아리 '메디하나'를 이끄는 고려대 의과대학 최지민 회장, 박하민 부회장을 비롯해 김준하, 임현승 학생이 참석했다.

이들은 두뇌건강증진센터 공동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년·청년 세대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세대공존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뇌건강학습지 공동제작 △두뇌건강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지도자 자조모임 운영 등에 협력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두뇌건강학습지 공동 제작을 위한 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뮤지컬 싹다르타' 네 번째 시즌 컴백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금융아트홀

'뮤지컬 싹다르타'가 네 번째 시즌으로 새롭게 돌아온다. '싹다르타'는 2600년 전 카필라국의 태자로 태어나 부처가 된 고타마 싹다르타의 이야기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전 고뇌와 성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화려한 안무와 장엄한 음악으로 녹여냈다. 트로트 가수 신유와 뮤지컬 배우 박시원이 태자의 삶을 버리

고 고행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고타마 싹다르타 역을 맡아 서로 다른 싹다르타의 모습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콜리야국의 공주이며 싹다르타의 아내인 야소다라 역에는 간미연·권미희·박혜민이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제작사 엠에스엔시 김면수 대표는 "훌륭한 배우들, 새로운 창작진, 수

많은 스태프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전보다 생동감 있고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뮤지컬 '싹다르타'는 3월8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에서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2·7시에 만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공연이 없다. 1661-4191

불교서적 월간베스트(2/1~28)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파카(아행가요가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현천 역	선요가
2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금강반야바라밀경)	법륜스님	정토
3	육조법보단경(큰수레 초서9)	육조혜능/학담	큰수레
4	명상이 가져다 준 선물: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다	조치영	운주사
5	불공 잘해라:원정 대성사 일대기	김천/불교총지종	운주사

불교총지종 후원업체 (주)동원글로벌



배내인 물티슈

배내인이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 입히는 배 냇저고리의 의미처럼 부모 사랑을 뜻 합니다

구입방법:쇼핑몰 benein.com /



카카오톡 배내인 추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리점,유통상담한영 /라벨 인쇄 판촉용 상담
대량 구매 상담 T.070-7596-2401



엠보싱 물티슈 100매입

엠보싱 적당한두께



베이직 물티슈 100매입

가성비갑 사무실용으로 최고



휴대용 손세정물티슈 30매입

알코올함유



수인회 10년, “우리 계속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도시락 나눔으로만 마음 이어가, 후원 손길 절실



법상 정사, 정원 전수, 수인회 황갑선 회장, 김예선 총무, 박금화 교도, 이경화 신정회장

포항 수인사(주교: 법상 정사) 자원봉사 신협단체 ‘수인회’가 어느덧 10년을 맞이했다. 포항시에서 유일한 종교 봉사 단체로 이미 도심 안에서 수인회의 자비나눔 실천은 정평이 나왔다.

포항시는 이미 시정 활동 참여와 자원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준 수인회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 지난 2015년도에는 감사의 표창장을 수여한 바 있다. 또 수인회를 통해 교화되어 진행언자로 정진하는 교도들도 수인사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2년 넘게 지속되어오는 코로나의 여파는 그늘지고 소외된 사회 곳곳을 밝혀주던 도움의 손길도 멈추게 했다.

수인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함께 때때로 펼쳐지는 지역 행사에 참여해서 가장 주특기인 요리 실력으로 봉사 기금을 만들어 왔다.

지역의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주 1회 무료급식 지원과 월 1회 반찬도시락 배달봉사를 펼치고 매년 김장나눔행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도왔다.

지금은 음식 재료비의 씨앗이 되

었던 행사도 멈추고 사원에 교도의 발길도 뜰어져 후원도 점차 줄었다.

감염예방 차원에서 대면 식사마저 금지된 현재는 불교총지종사회 복지재단 후원금으로 한달에 도시락 30개 나눔으로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수인회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희망을 모았다.

황갑선 회장, 김예선 총무, 수인회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찰요리 교수 박금화 교도 그리고 수인사 신정회 이경화 회장이 새로 부임한 주교 법상 정사, 정원 전수와 함께 직면한 수인회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수인회는 포항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기관이다 보니 봉사할 곳을 찾는 분들이 수인회에 많이 옵니다. 도시락 나누는 날만 해도 공양실뿐만 아니라 배달하시는 분까지 20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저도 봉사하다가 총지종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김예선 총무는 오래전 사찰음식 강좌에 나왔다가 나눔 봉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교도가 되었다. 황갑선 회장이 여기에 덧붙었다.

“2년 째 김장을 못했어. 모여서 일을 도모한다는 것도 어려웠지만 모든 재료를 회사(후원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엄두를 못 냈어요. 하지만 이제 사원과 종단에도 요청하고 우리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비나눔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의 소명이니까요”

신정회 회장 이경화 보살은 “수인회가 신정회 활동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수인회를 통해서 신정회에 오신 분들도 많아요. 사찰요리라는 박금화 보살님 덕에 수인사 공양은 정말 맛나기로 유명합니다. 수인회가 잘 되어서 신정회도 커나가고 훌륭한 법을 널리 일으키는 수인사가 되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수인회 회원들은 교도로서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어려운 이웃의 전수천안이 되어주기를, 종단 교화의 본보기로 자리매김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박재원 기자

후원	수협 2010-0891-3775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수인사급식)
----	---------------------------------------

정각사 자비회, 모자가정에 온정

마리아 모자원 해맞이빌에 회사



부산 정각사(주교: 범일 정사) 신협 봉사단체인 자비회가 올해로 4년째 모자가정 돌봄을 이어 갔다. 지난 1월 20일 백일숙 회장과 총무 이영순, 감사 황영순 교도는 모자 가정 돌봄 센터인 마리아모자원 해맞이빌(부산 연제구 소재)을 직접 방문하여 보시금을 전달하고, 자비회사의 온정을 나눴다.

백회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회원 간 모임은 못해도 회원들께서 감사하게도 꾸준히 보시금을 보내 주고 계신다. 모자 가정 돕기 외에도 국내든 국외든 소외 받고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들을 찾아 도움 예정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故 경모 님(2월 12일 입적, 자석사 도우 정사 부친)

고맙습니다 ‘불공 잘하라’ 설판재자 손용수, 신우철 님



총/지/문/답 16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

정법계 진언(淨法界眞言) ‘옴람’은 행자 자신을 포함하여 일체 법계를 청정케 하는 진언입니다. 의식에 있어서 정법계 진언이 가지는 의미는 타 종단에서 예불시 독송하고 있는 정구업 진언(淨口業眞言)과 같은 성격의 진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보다 더 광대무량(廣大無量)한 진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업(口業)을 짓기 쉬운 입을 청정케 하는 진언이 ‘정구업 진언’이라고 한다면 ‘정법계 진언’은 ‘입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나아가 나를 포함한 일체의 우주법계를 모두 청정케 하는 진언’이기 때문입니다. 소우주(小宇宙)인 나를 포함하여 일

체 법계를 모두 청정케 하는 진언입니다. ‘옴람’을 염송함으로써 나의 삼업(三業)이 맑고 청정해지며, 자신은 물론 법계는 모두 청정을 이루게 됩니다. 중생의 제일 소원은 ‘재난의 소멸과 일체서원의 성취’ 일 것입니다. 중생이 가지는 소원을 성취하는 길은 중생 자신의 삼업청

정에 있습니다. 『보살장정법경』에 이르기를, ‘삼업이 청정하여야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고, 바른 생각으로 모든 번뇌를 다 여의고 일체를 원만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염송해야 하는 것이 ‘정법계 진언’입니다. 청정을 이룬 뒤에 그 다음의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을 염송함으로써 공덕은 더욱 상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총지종의 염송의례는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인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출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총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서울·경기교구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원동로 79-8 (054)261-0310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해대원동)	(031)751-8685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746-7434	
벽복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길 16 (효목동) (053)743-9812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부산·경남교구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삼정동)	(032)528-2742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충청·전라교구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17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복길 12 (호사동1가)	(063)224-4358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혜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창종 50주년을 맞은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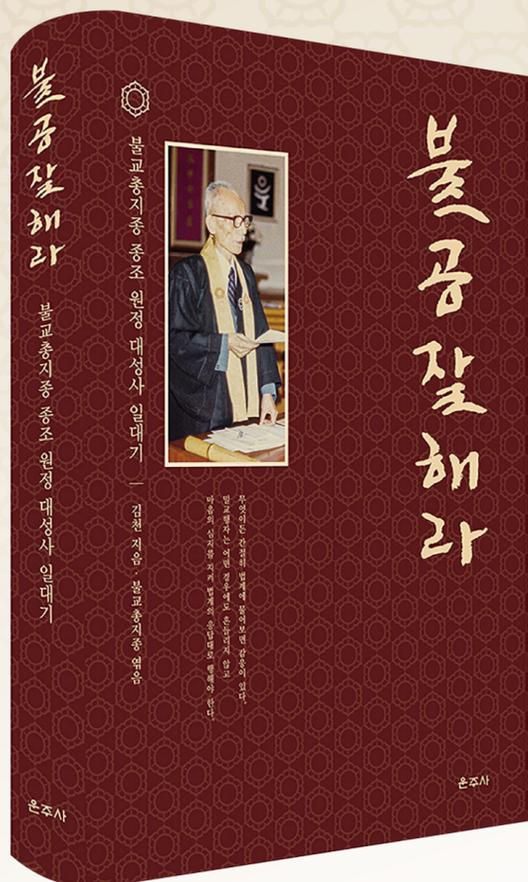
한국 정통 밀교의 맥을 잇고,
현대 한국 밀교를 중흥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



밀교경전의 번역과 편찬, 그리고 밀교의식의 복원에 힘을 기울여
현대 한국 밀교의 수행체계를 확립한 원정 대성사!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밀교에서 중생구제의 답을 찾은 원정 대성사의 일생, 정진과 체험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길’을 밝힌
‘생활불교, 재가불교’ 종단 불교총지종!



불공잘해라

김천 지음/불교총지종 엮음/국판/양장/284쪽/값 15,000원